 <b>보건복지부</b>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17. 10. 17. / (총 8 매)	담당부서	사회보장총괄과
과 장	고 형 우	전 화	02-6020-3310
담 당 자	윤 성 열		02-6020-3318

## 사회보장통계로 살펴본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과 함께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진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 연구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이 총 19점의 사회보장 통계 이슈페이퍼·통계 포스터를 제출하였다.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 적합성·데이터 활용 적정성·독창성·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총 8팀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작으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서술한 이슈페이퍼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정영환 作)이 선정되었다.

- 이 외에, 비만이 사회관계를 통해 전염된다는 가설을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검증한 이슈페이퍼 ‘여성의 비만을 변화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상관분석 2007~2015: 비만의 전염성과 정책적 함의’(김준솔, 유예원, 이서희 作)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우리나라 노년층의 실태를 진단하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회보장통계로 보는 노년층의 의료 및 소득환경’(유용재, 노현태 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수상작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와 이슈”에 포함되어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형우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신선한 접근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집·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DB(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을 널리 알려,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개요  
2. 최우수작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

**붙임 1**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개요**

**1. 목적**

- 일반 국민들이 사회보장통계 DB를 분석·활용하여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관심과 활용 제고

**2. 추진개요**

- (주제) 사회보장통계를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변화
- (공모기간) 2017. 8. 14(월) ~ 2017. 9. 1(금)
- (참가자격) 전국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단독 혹은 3인 이하 팀)
- (선정결과) 총 19작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작품(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선정

<수상자 개요>

구 분	성명	제목
최우수상	정영환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
우수상	김준솔, 유예원, 이서희	여성의 비만율 변화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상관분석 2007~2015: 비만의 전염성과 정책적 함의
	유용재, 노현태	사회보장통계로 보는 노년층의 의료 및 소득환경
장려상	안O규, 이O주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문제와 개선방안
	손O림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교육 필요
	정O기, 송O은	기초연금 소요예산 전망: 기준연금액 인상 시나리오
	김O	저출산 고령화 시대, 초등돌봄교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김O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의 앞날

**붙임 2**

**최우수작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

**1. “경력단절”은 여성 일자리 문제의 핵심**

- “경력단절”은 여성의 일자리 질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
  -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률은 20대 후반까지 증가하다 30대에서 급감하고, 40대 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즉 결혼/출산/육아를 경험하는 30대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결혼/출산/육아 문제가 안정화되는 40대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
  - 그림2에서와 같이 30대부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평균 임금은 감소함. 즉,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할 경우 여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며, 비정규직·저임금 등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겪게 됨.
- “경력단절”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특이현상
  -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OECD 가입국 중 출산율이 상위인 국가들은 여성의 고용률이 생애주기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 즉,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OECD 출산율 상위국가의 여성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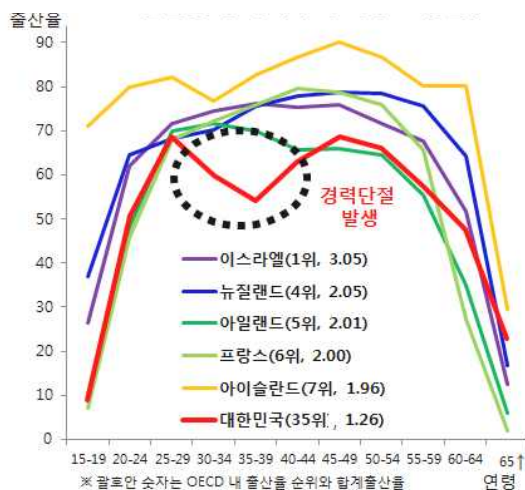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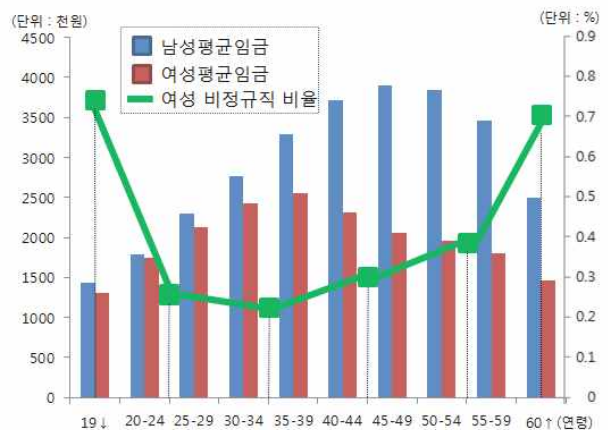


그림 2. 남녀 연령별 평균임금 및 여성 비정규직 비율



## 2. 우리 사회는 여성이 일하기 유리한 사회로 변화 중

- 30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음.
  - 0-5세의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20-29세의 고용률과 30-39세의 고용률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경력단절이 주로 일어나는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이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는 즉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육아를 하는 시기에 퇴사하기보다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출산전후·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동향 및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개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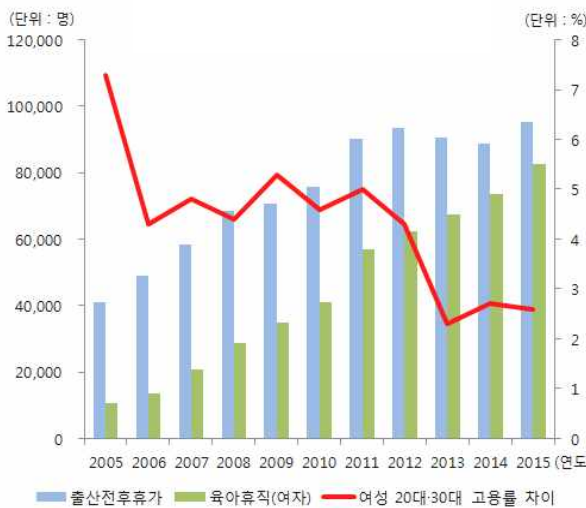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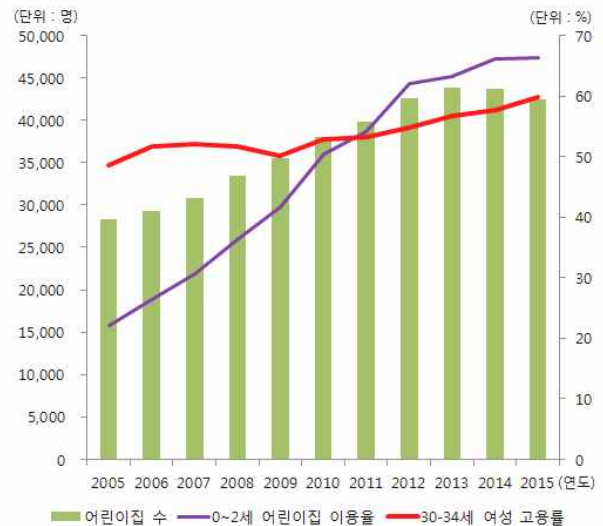


그림 4. 영아 보육시설 수·이용률 및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개선 추이



## 3. 더 많은 여성이 일할수록 사회가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

-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
  -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남성이 가정 내에서 가정관리 및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여성의 고용 증가가 가정 내 역할분담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부부폭력시 피해여성의 신고율은 여성의 고용률과 반대의 추이를 보임.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정도가 높으면 여성이 신고하여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이처럼 여성고용률과 부부폭력시 피해여성의 신고율이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고용증가가 여성의 가정 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 남성가사노동시간 및 여성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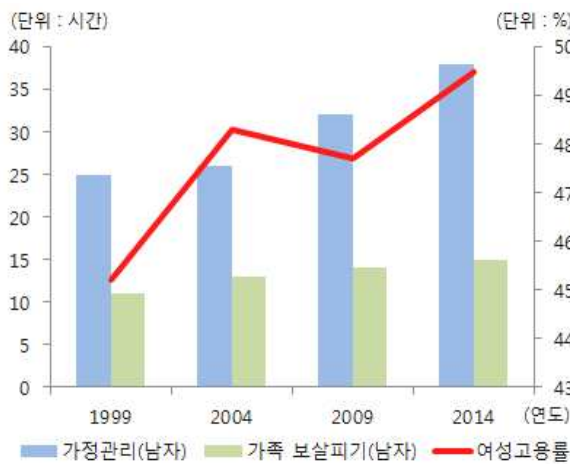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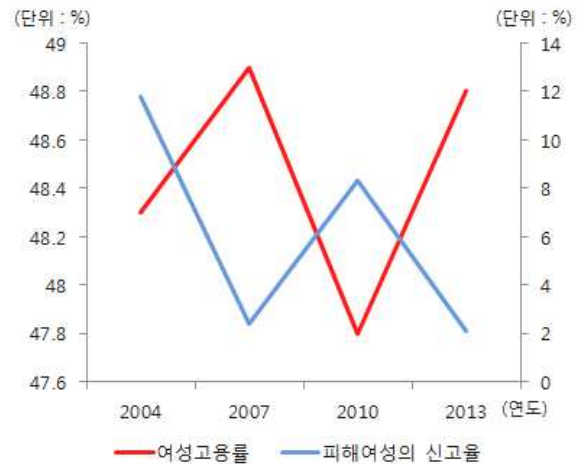


그림 6. 부부폭력시 피해여성의 신고율 및 여성 고용률



#### 4. 여성의 임금수준과 고용률의 개선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연결

- 출산율은 주택구매가격에 반비례, 고용률과 임금수준에는 비례
  - $[ \text{각 시도별 평균주택매매가격} / (\text{각 시도별 월 평균임금} \times \text{각 시도별 고용률} \times 2) ]$ 로 평균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계의 총 월 임금수익의 몇 배가 필요한지를 구하고, 이를 각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0.79로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즉, 임금수준과 고용률의 개선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런데 그림 4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과 시간당 임금이 낮음.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출산률 상위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음. 따라서 점차 여성의 임금과 고용률이 개선되어 나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음.

그림 7. 전국 평균가계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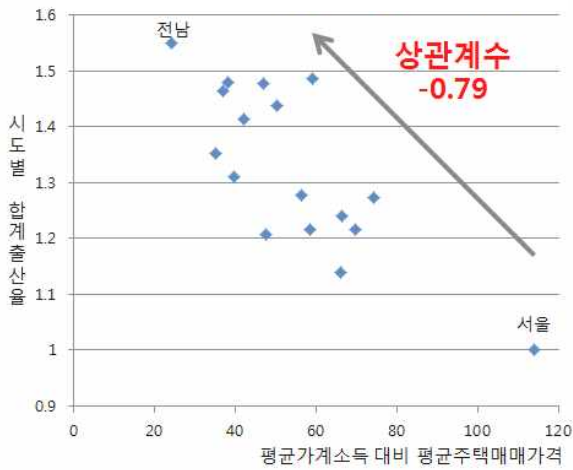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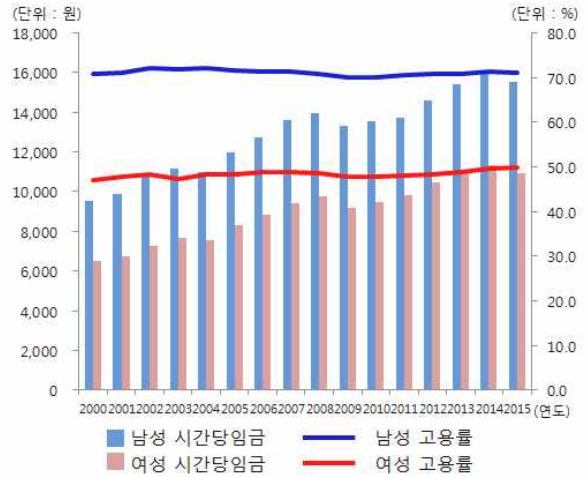


그림 8. 남녀 시간당 임금 및 고용률 격차



### 5. 결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 출산/육아휴가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영아 보육시설의 수와 이용률이 늘어나는 등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 임금, 일자리의 질은 남성에 비해 낮음. 여성의 고용과 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 내 역할분담에서 양성평등도가 높아지고, 여성의 지위 또한 올라감. 이렇게 여성이 일하면서 사회의 양성평등 정도가 높아지면 이는 다시 여성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
- 여성의 고용률과 일자리의 질이 나아질수록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

### < 참고문헌 >

자료	출처
그림1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15 UN, 「http://esa.un.org/unpd/wpp,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015. 7
그림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2015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2015
그림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1-10.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2005~201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1-12.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2004~20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그림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3-08. 국내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1~201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3-01.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그림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1-15. 연도별 20세 이상 기혼자 평균 시간(요일평균, 1일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그림6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1-16.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홍태경,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적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2014
그림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0-07. 시도별 합계출산율(20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2015 한국감정원, 평균주택매매가격, 2015. 4.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월 급여, 2015. 4
그림8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F. 04-31.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성별 시간당 임금액 (2000~20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각 연도